

독서가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

The Impact of Reading on Self-Efficac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박 성 재 (Sungjae Park)**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분석 결과 |
| II. 선행연구 분석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론 |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독서가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교육고용패널 II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관심변인인 독서와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의 성장궤적을 분석하고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세 변인간의 영향관계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독서량과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서량의 초기값은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 초기값과 정(+)적 영향 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독서량 초기값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주제어: 독서량,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 한국교육고용패널, 이차자료분석, 잠재성장모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reading on self-efficac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nel II data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rough analyzing the data with latent growth model, the growth trajectories for reading, self-efficac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were identifie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ree variances were analyzed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As results, reading books, self-efficac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were decreased, as times go by. Next, the intercept of reading was postively related with self-efficac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Finally, self-efficacy mediated between the intercept of reading and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and it's statistically significant.

KEYWORDS: The Amount of Reading, Self-efficacy, Acceptance of Multi-cultur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Secondary Data Analysis, Latent Growth Model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 한성대학교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도서관정보문화트랙 부교수
(spark@hansung.ac.kr / ISNI 0000 0004 6338 4953)

• 논문접수: 2022년 12월 3일 • 최초심사: 2022년 12월 5일 • 게재확정: 2022년 12월 22일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3(4), 293-318, 2022. <http://dx.doi.org/10.16981/kliiss.53.4.202212.293>

* Copyright © 2022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I. 서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외국인주민의 수는 213만여 명이다. 코로나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외국인주민의 수가 상승했지만 코로나 이후 감소추세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주민은 전체의 4%를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체류외국인 통계에서 외국인 유학생 수는 국내 코로나 제한이 완화되면서 2021년도에는 전년 대비 6.7% 증가한 163,699명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2021년 기준으로 169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의 국적도 중국(42.9%), 베트남(10.7%), 태국(8%), 미국(7.2%), 우즈베키스탄(3.4%)으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것 중의 하나는 다른 문화를 수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다문화수용성의 수준이다. 높은 다문화수용성 수준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정서적 공감, 실천적 행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다(김미진, 2010).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는데 자기효능감이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 중의 하나이다(이용순, 2010; 최성보, 임지은, 주현준, 2011; Li & Gasser, 2005).

자기효능감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성공경험이나 타인의 성공경험의 관찰, 즉 간접경험을 통해 획득가능하다(Bandura, 1977). 따라서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독서라는 점에서 다문화사회에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VR이나 AR 등의 정보기술의 발달로 독서 경험의 효과는 더욱 극적으로 바뀌었고 이를 통해 다른 문화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독서는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고 이는 다문화수용성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독서는 학습능력(김혜진, 염명숙, 2014), 학업성취도(정예화, 정제영, 2017)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권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0) 결과, 국민들의 독서량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독서를 하도록 유인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에서의 다문화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비스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프로그램 분석(안인자, 박미영, 2011), 다문화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인식연구(오해연, 김기영, 2014), 다문화자료 입수(조용완, 2008) 등의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과 서비스를 위한 장서, 그 인식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독서와 관련하여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주로 치료의 한 방법으로 독서치료가 제안되었고 노인을 위한 독서치료(조은주, 장혜란, 2010), 대학생 자아형성에서 겪는 스트레스 치료(구연배, 2007) 등의 연구

가 진행되었다. 또한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 소외계층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이연옥, 노영주, 2012)하거나 독서토론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안인자, 윤석윤, 2013) 등이 진행되었다. 이렇듯 문헌정보학계에서 다문화와 독서에 대한 연구는 함께 다루어지지 않은 분야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서와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를 분석하고 다문화사회에서 독서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관계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추적 관찰한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종단데이터는 특정 한 시점에서만의 데이터를 의미하는 횡단 데이터와 다르게 여러 시점에서 동일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라는 점에서 시간에 따른 관심변수의 변화를 알 수 있다. 한 시점에서의 독서의 효과가 아닌 독서량의 변화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II. 선행연구 분석

1.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독서의 행태는 독자의 인구학적인 특성에 따라, 독자가 처한 사회·문화·경제적인 환경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먼저 인구학적인 특성 중의 하나로 성별에 따른 독서량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보다 독서량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있다(Van Rees, Vermunt, & Verboord, 1999). 그러나 국민독서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20)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독서하는 비율은 높은 반면에, 남성이 여성에 비해 독서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독서량에 따라 집단별로 구분했을 때 독서량이 많은 집단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이용관, 2021). 학력이 높을수록 독서량이 증가(Smith, 1990)하고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의 독서량이 많은 것(Filimon, 2019)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경제적인 자원의 여부에 따라 독서실태 연구 결과(이용관, 2021)는 독서량이 적은 이용자들에게는 사회관계망이나 문화자원 등이 영향을 미치지만 독서량이 많은 이용자들에게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독서 환경 또한 학생들이 독서를 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독서 환경의 하나로 학교도서관의 사서교사 유무에 따른 독서생활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 사서교사가 있는 경우에 학생들의 독서시간이 많고 대출권수가 많았으며 DLS 이용경험과 사서에게 도움을 받는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주현, 변우열, 2018). 학교도서관의 편리한 시설과 장서 만족이 독서교육의 수준을 올리고 이는 독서경험과 독서교육의 효과로 나타났다(김성준, 2014). 이 외에도 자료구입비가 도서관 이용자의 대출건수 감소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박성재, 2022).

2. 독서의 효과

독서는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독서의 기능과 효과는 많은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다. 독서는 자기 성찰, 교양형성, 인지적 도구 개발 측면에서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방안(정옥년, 2018)이 될 수 있으며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Lysaker & Tonge, 2013)가 된다.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관계중심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기효능감과 대인관계역량이 높게 나타났다(이미숙, 정옥년, 2022). 독서는 또한 청소년들의 진로성숙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정아, 2011). 독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직무 관련 활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노경, 2022).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성을 매개로 독서는 직무열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내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독서는 본 연구의 관심 주제 중의 하나인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박혜숙, 2014)에서 독서시간은 다문화수용성에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지역 인식, 공동체 의식, 다문화 수용으로 구성된 시민의식과 여가 시간의 매체활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채수은, 2014)에서도 확인된다. 해당 연구에서 흥미로운 점은 컴퓨터 활용과 TV/비디오 시청 등의 매체 활용은 시민의식 관련 구인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이는 독서가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독서가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는데 셀프리더십과 자기조절 학습능력, 특히 동기변인과 학습전략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진, 염명숙, 2014).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김영식, 김민석, 이길재, 2019)는 독서를 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독서량이 많은 학생이 적은 학생보다, 독서 태도가 좋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학업성취도와 진로성숙도, 다문화수용성, 자기효능감을 가진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패널 데이터를 활용했지만 2016년 한 해의 데이터만을 이용한 횡단 데이터라는 점에서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실제로 서울교육종단 연구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정예화, 정제영, 2017)는 독서가 학업성취도와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초등학교 학생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중학교 학생들에게서는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국어성적에는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만 다른 과목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시점의 데이터를 이용한 종단연구는 변화에 초점을 맞춘 분석으로 변화의 실체적 의미에 다가갈 수 있는 결과를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믿음과 신념으로 정의된다(Bandura, 1977).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청소년의 자기효능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인식된다.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성공경험, 대리적 경험, 언어적 설득, 생리적이고 정서적 상태를 언급하고 있다. 이들 요인 중에서 성공경험이 자기효능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으로 대리적 경험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Bandura, 1977). 직접 성공을 경험하는 것과 함께 대리적으로 성공에 대해서 경험하는 것, 예를 들면 독서를 통해 성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자기효능감 향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중요하다고 느끼는 정도라는 점에서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청소년기 행복감을 높여준다(김청송, 2018). 또한 대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에 있어서 학업 및 진로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숙정, 유지현, 2008)에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대학생활 적응이 높았으며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대학생활 적응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연구(이지연, 2013)에서 진로결정에 있어서의 자기효능감이 부모의 지지와 진로태도 성숙 간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문화적 적응과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기효능감은 다문화사회에서 요구되는 자질 중의 하나이다(Li & Gasser, 2005). 청소년기의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에 관한 연구(이용순, 2010; 최성보, 임지은, 주현준, 2011)에서 두 변인 간의 정적인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자기효능감이 높은 청소년이 다문화수용성에 있어서 높다는 것으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통한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4. 다문화수용성

외국인 주민의 수가 증가하면서 단일 민족 중심의 한국 사회는 점차 다문화사회로 이행되어가고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기존 단일 문화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이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자신과 출신지가 다르거나 문화적 배경, 인종, 언어, 종교 등이 다른 사람과 자신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다양성을 받아들이는”(장인실, 김명희, 2011) 다문화수용성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자질 중의 하나이다. 다문화수용성은 단순히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정서적으로 공감하고 행동적 실천을 요구하는 개념이다(김미진, 2010). 따라서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높이는데 많은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정에서의 다문화 양육태도(이혜진, 장인실, 2010, 학교나 교육기관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문화 교육경험(이혜진, 장인실, 2010; 하경애, 2010)과 다문화 관련 다양한 미디어의 접촉(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등이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어떤 한 요인이 다문화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아닌 학교와 가정은 물론, 청소년들이 마주하는 환경에서 다문화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5. 선행연구 분석에 대한 소결

다문화 사회로 변해 가는 상황에서 구성원들에게 요구되는 다문화수용성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되고 이해는 앎과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독서가 중요하다. 독서가 제공하는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경험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다 수용적인 자세를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자기효능감은 그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 즉, 독서를 통해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을 증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독서를 더 잘 할 수 있을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주변 환경, 특히 도서관 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언급한 요인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파편적인 분석보다는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독서와 개인의 역량이 일시적인 현상처럼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변화해간다는 점에서 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론

1. 연구문제

독서와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네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독서량,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은 어떤 성장궤적을 보이는가?
연구문제 2. 사서교사 유무, 장서수, 일인당 장서수, 자료구입비, 일인당 자료구입비, 성별은 독서량 성장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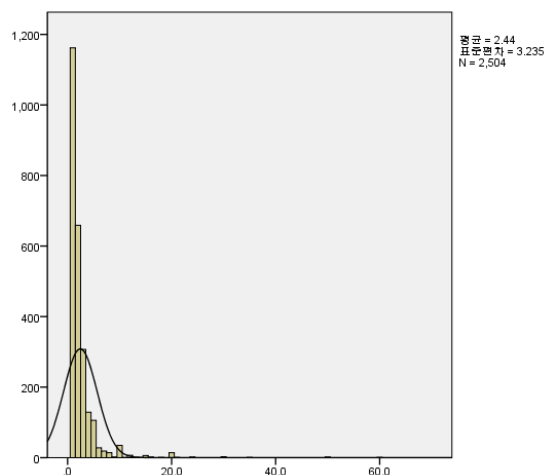
연구문제 3. 독서량,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 수준의 초기값과 변화율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독서량의 초기값 또는 변화율이 자기효능감의 초기값 또는 변화율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 수준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대상

연구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제공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II의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한국교육고용패널 데이터는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데이터로 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담임, 가정의 배경을 조사함으로써 다면적으로 학생의 성장을 조사한 자료이다. 동일한 응답자에게 매년 동일한 질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응답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추적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에는 학생의 학교생활, 학습 및 사교육, 가정생활, 여가생활, 현장체험 및 현장실습, 진로계획 및 직업의식, 건강, 개인적 특성 등으로 매우 폭넓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들 데이터 중에서 본 연구는 학교도서관 현황, 성별, 독서량,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 시작년도인 2016년 참여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총 10,558명이었다. 이들 중에서 독서량에 대한 질문에 '잘 모름' 혹은 '책을 읽은 적이 없음'으로 응답하거나 응답 자체를 거부한 학생 1,687명을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에서 독서량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데이터를 삭제하였다. 4년의 연구기간을 통해 총 8,054명이 제외되었으며 4년 동안의 독서량을 포함하는 2,504명만을 1차적으로 추출하였다.

그러나 1차로 추출한 연구 대상 데이터는 <그림 1>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분포에 있어서



<그림 1> 2016년 월평균 독서량 히스토그램

정규분포를 방해하는 이상치가 존재한다. 이상치를 제거하기 위해서 Tukey가 1977년 제안한 사분위수를 바탕으로 하한치와 상한치를 설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Tukey의 방식에 따라 2016년 데이터의 이상치를 구한 결과 '6' 이상의 값이 이상치라는 결과를 얻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2017년부터 2019년 데이터에 적용하여 이상치를 구한 결과 대체로 '4' 이상의 값을 이상치로 제시하고 있었다. 정규성 가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응답자 수를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2019년 데이터에서도 이상치 기준을 '6'으로 설정하였다. 이상치 분석결과, 264명의 결과가 이상치로 분류되었고 이들을 제거하고 최종 2,240명의 학생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변수에 대한 설명

본 연구의 목적 중의 하나가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독서의 효과라는 점에서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종속변수를 독서량으로 설정하였다. 독서의 효과로 본 연구는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을 측정하였다. 한국교육노동패널은 응답자에게 한 달 동안의 평균 독서량을 질문하고 있다. 응답자의 월별 평균 독서량은 연속형 수치로 수집이 된다. 독서의 효과로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 변수는 <표 1>과 같이 5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효능감 변수의 경우에는 2016년과 2020년 조사에서 6개의 문항을 사용했지만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공통 문항 5문항만을 이용해서 분석을 수행했다.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 문항의 신뢰도분석 결과, 크론바하 α 값이 모두 0.8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표 1>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 설문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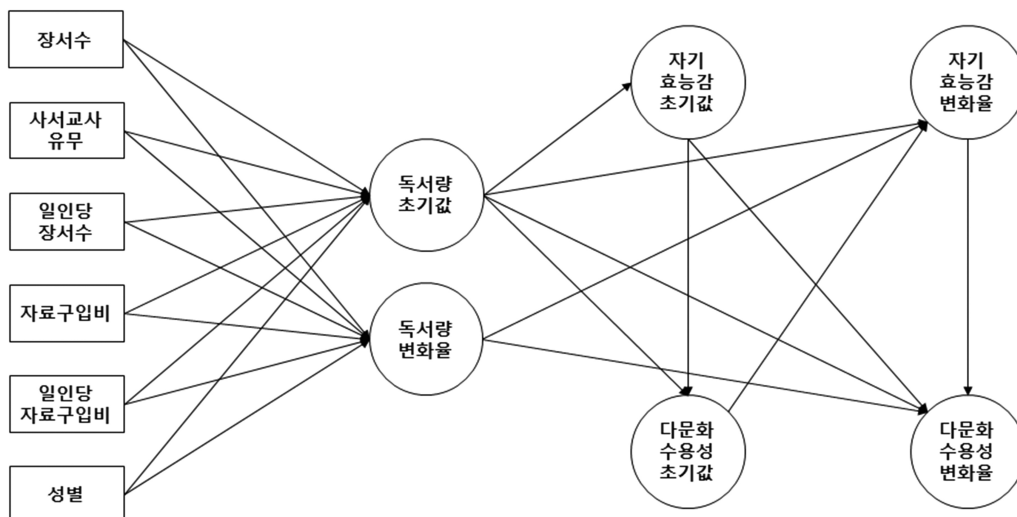
변수	설문문항
자기효능감	1.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2.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
	3.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4. 내가 결정해야 할 일을 무리 없이 결정한다
	5. 내가 계획한 것을 잘할 수 있다
다문화수용성	1.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2.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을 같은 반 친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
	3.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청소년과 가장 친한 단짝이 될 수 있다
	4. 이성 친구를 사귀게 된다면,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을 이성 친구로 사귄 수 있다
	5. 커서 나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위해 6개의 변수(사서교사 유무, 장서량, 일인당 장서량, 자료구입비, 일인당 자료구입비, 성별)를 사용하였다. 선정된 6개 변수는 시간불변 공변인

으로 연구모형에 포함하였고 연구의 시작 시점인 고등학교 2학년 때의 학교도서관 현황과 성별 정보를 변수값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시작 시점에서의 학교도서관 현황이 연구 참여자의 독서량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2016년 시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먼저, 사서교사의 유무를 포함한 도서관 관련 현황 정보는 학교 정보공시를 통해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장서량의 경우에는 장서량이 '0'인 도서관은 결측치로 처리했다. 응답자가 소속한 학교의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장서량의 평균을 구하고 평균보다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와 동일하게, 일인당 장서량과 자료구입비, 일인당 자료구입비 또한 평균을 이용하여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했다. 성별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성별에 대한 응답을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4. 분석방법

앞서 제시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할 경로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연구문제 1에서 검증할 관심 변수들의 성장궤적은 잠재성장모형의 무조건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무변화, 선형변화, 비선형변화 모형 중 최적의 모형을 찾고 이를 적용한 성장궤적을 추정하였다. 연구문제 2의 해결을 위해 독서량의 두 잠재변인과 6개 변수와의 관계를 조건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했다. 연구문제 3과 4의 경우에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고 붓트스트랩을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했다.



<그림 2> 연구 경로모형

IV. 분석 결과

1. 변수의 정규성 검정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본 가정 중의 하나는 성장변화를 보이는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규성에 대한 가정을 검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이용하였다. 김수영(2016)이 제안하고 있듯이 왜도의 절대값이 3 미만이고 첨도의 절대값이 10 미만일 때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2>에서와 같이 성장궤적 분석을 위해 사용된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가 기준치 범위에 있다는 점에서 변수의 정규성 가정을 위반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변인들의 평균변화를 살펴보면, 독서량의 경우 고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2019년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의 경우에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고 있지만 모두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 독서량,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의 기술통계량

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독서량	2016	2240	1.868	1.1400	1.463
	2017	2240	1.665	1.1210	1.569
	2018	2240	1.609	1.1077	1.622
	2019	2240	1.658	1.1158	1.499
자기효능감	2016	2239	3.728	.6534	-.285
	2017	2240	3.738	.6424	-.270
	2018	2240	3.690	.6290	-.415
	2019	2240	3.734	.6070	-.364
다문화수용성	2016	2238	3.950	.7073	-.405
	2017	2240	4.013	.6903	-.408
	2018	2239	3.928	.6974	-.465
	2019	2240	3.939	.6896	-.416

2. 패널에 대한 기술통계량

한국교육고용패널(II) 데이터는 고등학교 2학년부터 4년 동안의 데이터이다. 본 분석에 사용된 패널 데이터의 응답자 특성은 <표 3>과 같다. 2,240명의 응답자 중에서 여자가 55.7%로 44.3%의 남성보다 많았다. 고등학교 유형에 있어서 가장 많은 유형은 일반고등학교(59.6%)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특성화고등학교(13.0%), 마이스터고등학교(9.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도가 24.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18.5%, 인천광역시 8.2%로 수도권이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3〉 패널 응답자의 기술통계량

변인		응답자수	비율(%)
성별	남자	993	44.3
	여자	1,247	55.7
고등학교 유형	일반고등학교	1,335	59.6
	자율고등학교	146	6.5
	특성화고등학교	292	13.0
	과학고등학교	66	2.9
	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103	4.6
	예술고등학교	44	2.0
	체육고등학교	35	1.6
	마이스터고등학교	219	9.8
지역	서울특별시	415	18.5
	부산광역시	106	4.7
	대구광역시	79	3.5
	인천광역시	184	8.2
	광주광역시	73	3.3
	대전광역시	50	2.2
	울산광역시	75	3.3
	경기도	547	24.4
	강원도	87	3.9
	충청북도	67	3.0
	충청남도	108	4.8
	전라북도	88	3.9
	전라남도	79	3.5
	경상북도	114	5.1
	경상남도	124	5.5
	제주도	44	2.0
	전체	2,240	100.0

전체 390개 학교도서관 중에서 54개 도서관(13.85%)만이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었다. 연구에 포함된 학교도서관의 장서와 자료구입비 현황은 〈표 4〉와 같다. 2016년 장서량이 '0'으로 나타난 도서관 한 곳을 결측치로 처리했다. 학교도서관의 장서량 평균은 약 15,138권이었고 1인당 장서수는 24,728권으로 나타났다. 389개 도서관 중에서 장서량이 가장 많은 곳은 58,247권을 소장하고 있었고 가장 적은 곳은 1,414권을 소장하고 있었다. 자료구입비의 평균은 약 9,426천원이고 1인당 자료구입비 평균은 약 15천원으로 나타났다. 390개 도서관 중에서 자료구입비가 가장 많은 곳은 7천만원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곳은 700,000원으로 100배 정도 차이가 났다. 1인당 자료구입비에 있어서도 큰 폭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별 편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4〉 학교도서관 변인의 기술통계량 (2016년 기준)

변인	사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장서수	389	1,141,000	58,247,000	15,138,308	7434,260
1인당 장서수	389	1,600	121,900	24,728	16,974
자료구입비	390	700,000	70,000,000	9,426,002,282	5,449,603,749
1인당 자료구입비	390	966,851	384,615,385	15,613,510	21763,170

3.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성장궤적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최적의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본 연구에 사용된 3개의 변인들의 성장궤적을 무변화 모형, 선형 모형, 비선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한 후 적합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모형 간의 차이를 검정하기 위해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했으며 더 많은 요인을 포함하고 있는 모형일수록 모델이 더 정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변화 모형보다는 선형변화 모형이, 선형변화 모형보다는 비선형변화 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CFI, TLI, SRMR, RMSEA와 같은 근사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CFI와 TLI값은 0.8 이상일 때, SRMR과 RMSEA는 0.08 이하일 때 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Hu & Bentler, 1999). 이 기준을 적용하여 모형을 비교했을 때, 독서량과 관련하여 무변화 모형은 CFI와 TLI, RMSEA 기준값의 범위를 벗어난 반면, 선형모형과 비선형모형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선형 변화의 경우 매우 높은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경우, 선형변화 모형만이 4개의 적합도지수 기준 범위를 만족했다. 다문화수용성 변인과 관련해서 선형변화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독서량과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의 성장궤적을 선형모형으로 분석하고 변수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였다.

〈표 5〉 독서량,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적합도		X^2	df	CFI	TLI	SRMR	RMSEA
독서량	무변화	153.924***	8	0.805	0.854	0.065	0.090
	선형변화	47.142***	5	0.944	0.932	0.031	0.061
	비선형변화	0.213	1	1.000	1.006	0.002	0.000
자기효능감	무변화	100.390***	8	0.959	0.969	0.083	0.072
	선형변화	45.075***	5	0.982	0.978	0.043	0.060
	비선형변화	13.653***	1	0.994	0.966	0.014	0.075
다문화수용성	무변화	104.455***	8	0.936	0.952	0.056	0.073
	선형변화	46.168***	5	0.973	0.967	0.030	0.061
	비선형변화	25.186***	1	0.984	0.904	0.021	0.104

* $p<0.05$, ** $p<0.01$, *** $p<0.001$

4. 잠재성장모형 분석 결과

네 차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독서량과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성장궤적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독서량의 초기값, 즉 고등학교 2학년의 월 평균 독서량은 1.807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독서량의 변화율($\beta = -0.069$, $p < 0.001$)은 음의 값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분산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이는 참여자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나타낸다. 독서량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점에서 추후 수행될 독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변량 잠재성장분석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beta = -0.103$, $p < 0.001$)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점에서 초기값이 큰 응답자는 변화율이 더 작다는 점에서 가파르게 감소한다. 즉, 고등학교 2학년 때 독서량이 많은 학생의 감소가 적은 학생보다 가파르게 감소함을 의미한다.

자기효능감의 초기값은 3.725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그러나 변화율은 그 값이 -0.001로 매우 작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분산은 초기값과 기울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점에서 응답자 개인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자기효능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beta = -0.021$, $p < 0.001$) 역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다문화수용성의 초기값($\beta = 3.975$, $p < 0.001$)과 변화율($\beta = -0.012$, $p < 0.05$)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잠재변인의 분산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는 점에서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응답자 개인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초기값과 기울기의 공분산($\beta = -0.025$, $p < 0.001$)은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점에서 초기 다문화수용성이 큰 응답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문화수용성이 작은 응답자에 비해 더 가파르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표 6> 독서량,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의 성장궤적 추정치

변수구분		평균(표준오차)	분산(표준오차)	공분산(표준오차)
독서량	초기값	1.807*** (0.022)	0.510*** (0.040)	-0.103*** (0.016)
	변화율	-0.069*** (0.010)	0.062*** (0.009)	
자기효능감	초기값	3.725*** (0.013)	0.215*** (0.012)	-0.021*** (0.004)
	변화율	-0.001 (0.005)	0.015*** (0.002)	
다문화수용성	초기값	3.975*** (0.014)	0.217*** (0.014)	-0.025*** (0.005)
	변화율	-0.012* (0.006)	0.020*** (0.003)	

* $p < 0.05$, ** $p < 0.01$, *** $p < 0.001$

5. 독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 연구는 사서교사 유무, 장서량, 일인당 장서량, 자료구입비,

일인당 자료구입비, 성별 요인을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먼저 검토했다. 다중공선성의 검증 기준은 결정계수(R^2)가 0.9 이상, 공차가 0.1 이하, 분산팽창지수(VIF)가 10 이상일 때 발생한다(김수영, 2016). 다중공선성 검토 결과, 결정계수의 최대값은 0.548, 공차의 최소값은 0.452, 분산팽창지수의 최대값은 2.210이었다는 점에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이 발생하는 경우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변수들을 투입한 조건모형 분석을 실시했고 모형의 적합도는 <표 7>과 같다. 근사 적합도 지수로 사용된 4개 지수 모두 Hu와 Bentler(1999)의 기준을 만족한다는 점에서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

<표 7> 독서량의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χ^2	df	CFI	TLI	SRMR	RMSEA
60.681	17	0.946	0.904	0.017	0.034

먼저 사서교사의 유무는 독서량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에 재학했던 응답자의 초기값은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에 재학했던 응답자의 초기값보다 낮게 나타났다. 전체 성장궤적에서 감소추세를 감안했을 때 변화율의 부(-)적 영향은 사서교사가 있는 경우가 더 가파르게 감소함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도서관 장서수가 독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가 속한 학교의 도서관 장서수가 평균 이상인 경우보다 평균이하인 경우의 초기값이 더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일반적으로 장서량이 많을 수 있지만 일인당 장서수가 적어진다. 학생수가 작은 학교는 장서량이 작을 수 있지만 일인당 장서수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장서수가 작지만 일인당 장서량이 많다는 것은 학생수가 적지만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독서량의 초기값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독서량의 변화율에 있어서는 장서수가 더 많은 도서관이 있는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의 감소율이 장서수가 적은 도서관이 있는 학교에 재학했던 학생보다 더 작았다. 즉, 도서관 장서수가 독서량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인당 장서수와 관련해서는 반대의 결과를 보이는데 일인당 장서수가 높은 학교에 재학했던 응답자의 초기값이 낮은 학교에 재학했던 응답자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변화율은 부(-)적 영향을 나타냈고 일인당 장서수가 높을수록 변화율은 가파르게 감소했다.

독서량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분석된 자료구입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인당 자료구입비의 경우에는 독서량의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지만 변화율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인당 자료구입비가 늘어날수록 독서량 변화율은 더 가파르게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른 독서량의 성장궤적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독서량 초기값이 더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독서량 변화율($\beta = -0.071$, $p < 0.001$)에 있어서는 여성의 독서량 감소가 남성의 감소보다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표 8〉 독서량 영향요인의 추정치

경로		비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계수 (β)
사서교사 유무 (사서유=1)	→ 독서량 초기값	-0.016	0.061	-0.008
	→ 독서량 변화율	-0.004	0.028	-0.005
장서수 (평균이상=1)	→ 독서량 초기값	-0.169***	0.050	-0.117
	→ 독서량 변화율	0.052*	0.023	0.102
일인당 장서수 (평균이상=1)	→ 독서량 초기값	0.186***	0.056	0.125
	→ 독서량 변화율	-0.052*	0.026	-0.100
자료구입비 (평균이상=1)	→ 독서량 초기값	-0.024	0.051	-0.017
	→ 독서량 변화율	0.002	0.023	0.004
일인당 자료구입비 (평균이상=1)	→ 독서량 초기값	0.098	0.062	0.062
	→ 독서량 변화율	-0.057*	0.028	-0.102
성별 (여성=1)	→ 독서량 초기값	-0.013	0.044	-0.009
	→ 독서량 변화율	-0.071***	0.020	-0.140

* $p < 0.05$, ** $p < 0.01$, *** $p < 0.001$

6. 잠재변인간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독서량이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분석모형의 적합도 결과는 〈표 9〉와 같다. 카이제곱 통계량과 네 개의 근사 적합도 지수는 모두 분석모형이 적합함을 보여주고 있다.

〈표 9〉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χ^2	df	CFI	TLI	SRMR	RMSEA
376.331	55	0.935	0.922	0.036	0.051

독서량과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 대한 모형의 경로계수 분석결과는 〈표 10〉과 같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나타난 경로는 6개로 나타났다. 독서량 초기값은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 초기값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2학년 때 독서량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두 변인의 변화율에는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독서량 변화율이 자기효능감 변화율과 다문화수용성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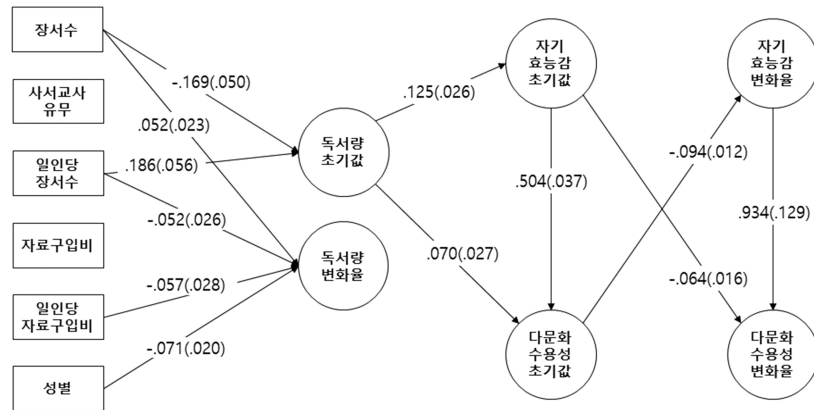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자기효능감의 초기값은 다문화수용성 초기값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효능감이 높은 응답자는 다문화수용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자기효능감의 초기값은 다문화수용성 변화율에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즉 감소세가 더 크다는 것이다. 다문화수용성 초기값이 자기효능감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도 유사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학생은 자기효능감의 변화율, 즉 감소세가 더 컸다.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의 변화율은 매우 높은 상관을 보이는데 앞서 초기값이 높은 상관을 보인 것과 같이 변화율에 있어서도 높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의 변화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할 수 있다.

〈표 10〉 독서량,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추정 결과

경로			비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S.E.)	표준화계수 (β)
독서량 초기값	→	자기효능감 초기값	0.125***	0.026	0.201
독서량 초기값	→	자기효능감 변화율	-0.007	0.010	-0.046
독서량 변화율	→	자기효능감 변화율	0.043	0.035	0.098
독서량 초기값	→	다문화수용성 초기값	0.070**	0.027	0.106
독서량 초기값	→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0.008	0.015	-0.037
독서량 변화율	→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0.048	0.048	-0.080
자기효능감 초기값	→	다문화수용성 초기값	0.504***	0.037	0.472
자기효능감 초기값	→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0.064***	0.016	-0.195
자기효능감 변화율	→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0.934***	0.129	0.681
다문화수용성 초기값	→	자기효능감 변화율	-0.094***	0.012	-0.420

* $p<0.05$, ** $p<0.01$, *** $p<0.001$

〈그림 3〉은 독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독서량과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 사이의 영향관계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로만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표 8〉과 〈표 10〉에 제시된 변수 간의 영향 관계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량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서수와 일인당 장서수이다. 독서량 변화율에 미치는 요인은 장서수, 일인당 장서수, 일인당 자료구입비, 성별로 나타났다. 독서량 변화율이 다문화수용성 변화율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독서량 초기값은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기효능감 초기값은 다문화수용성 초기값과 변화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림 3〉 연구모형의 경로도 - 비표준화 추정치(표준오차)

독서량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자기효능감 초기값이나 변화율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 초기값과 변화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부트스트랩(Bootstrap)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은 독서량 초기값 또는 변화율에서 다문화수용성 초기값 또는 변화율까지 경로와 영향력을 나타내는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및 95% 신뢰구간에서 하한값과 상한값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6개의 경로 중에서 4개의 경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독서량 초기값은 자기효능감 초기값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 초기값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초기값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초기값이 높고 다문화수용성 초기값도 높게 나타났다.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인 〈표 11〉에서 직접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 총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 독서량 초기값으로부터 다문화수용성 초기값으로의 경로의 총효과는 0.200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또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직접효과, 즉 독서량 초기값이 다문화수용성 초기값에 미치는 효과가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량 초기값이 자기효능감 초기값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 변화율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량 초기값이 높은 학생은 다문화수용성도 높지만 가파르게 감소한다는 것이다. 독서량 초기값에서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의 매개효과 경로로 자기효능감 초기값, 자기효능감 변화율, 다문화수용성 초기값-자기효능감 변화율, 자기효능감 초기값-다문화수용성 초기값-자기효능감변화율 등 4개의 경로를 통해 영향이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이들 경로 중에서 자기효능감 변화율을 매개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매개변수의 영향은 계수가 모두 0.01이하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 효과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 〈표 12〉에서 알 수 있듯이,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모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접효과와 총효과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독서량 변화율이 자기효능감 변화율을 매개로 다문화수용성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변화율 간의 매개효과는 발생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매개효과 분석에서 두 내생변수인 다문화수용성 초기값과 변화율의 추정된 R^2 값은 각각 0.708과 0.302로 나타났다. 즉, 분석모형을 통해 다문화수용성 초기값의 분산 중 약 70.8%가 설명될 수 있고 다문화수용성 변화율의 30.2%가 설명될 수 있다.

〈표 11〉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경로	비표준화계수 (B)	표준오차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독서량 초기값 → 자기효능감 초기값 → 다문화수용성 초기값	0.063***	0.018	0.033	0.101
독서량 초기값 → 자기효능감 초기값 →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0.008**	0.003	-0.015	-0.003
독서량 초기값 → 자기효능감 변화율 →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0.006	0.012	-0.031	0.015
독서량초기값 → 다문화수용성 초기값 → 자기효능감 변화율 →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0.006*	0.003	-0.012	-0.001
독서량초기값 → 자기효능감 초기값 → 다문화수용성 초기값 → 자기효능감 변화율 →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0.006**	0.002	-0.010	-0.003
독서량 변화율 → 자기효능감 변화율 →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0.040	0.038	-0.024	0.125

* $p<0.05$, ** $p<0.01$, *** $p<0.001$

〈표 12〉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관계변인			표준화계수(β)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독서량 초기값	→	다문화수용성 초기값	0.106*	0.095**	0.200**
독서량 초기값	→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0.037	-0.127*	-0.165**
독서량 변화율	→	다문화수용성 변화율	-0.080	0.067	-0.013

* $p<0.05$, ** $p<0.01$

V. 논의 및 결론

다문화사회로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다문화수용성에 독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종단자료 중의 하나인 한국교육고용패널 II 데이터에 포함된 독서와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 관련 설문문항을 이용하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변수들의 종단적 변화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고등학생들의 독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도서관 관련 요인을 살펴보았다. 독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독서량은 장서수가 많을수록 낮게 나타나고 일인당 장서수가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독서량의 변화율에 있어서는 장서수, 일인당 장서수, 일인당 자료구입비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지만 장서수만이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서수가 많은 경우 독서량 초기값은 작지만 변화율이 작다는 점에서 조금씩 감소하지만, 장서수가 적은 경우에는 독서량 초기값은 크지만 변화율이 크다는 점에서 급격히 감소한다. 이는 시간이 흐르면 결국에는 두 성장궤적이 하나로 수렴함을 의미한다.

오히려 사서교사의 유무와 자료구입비가 독서량 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박주연, 변우열(2018)의 연구에서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대출권수가 많고 학생들의 독서시간도 많았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사서교사의 역할을 독서량으로만 평가할 수 없지만 독서 함양이 사서교사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라는 점에서 사서교사의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독서와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 변화를 종단적으로 분석한 결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세 변인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량의 경우에는 4년차 연구에서 전년에 비해 증가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량과 독서시간이 감소하는 결과로 김성준(2014)의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된다. 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자기효능감의 감소 현상은 다른 국내외 연구(임은미, 정성석, 2009; Caprara et al., 2008)에서도 나타났다. 자기효능감의 감소의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청소년기 학생들에게는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임은미, 정성석, 2009).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겠지만 입시를 진로를 결정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이누리, 박세현, 이윤수, 2022).

독서량과 자기효능감, 다문화수용성의 경로분석 결과, 독서량의 초기값은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 초기값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독서량이 많은 학생이 높은 자기효능감과 높은 다문화수용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독서를 통해 성공에 대한 간접경험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아지고 다른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함으로써 다문화수용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서 활동과 학업성취도, 진로성숙도, 다문화수용성, 자기효능감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김영식, 김민석, 이길재(2019)의 연구에서도 확인된다. 그렇지만 독서량의 초기값이나 변화율이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의 변화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인 모두 감소하지만 독서량의 경우에는 다른 두 변인에 비해 보다 더 급속하게 감소한다는 점에서 변인 간의 영향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의 관계는 매우 유사한 변화를 보이고 있었다. 자기효능감의 초기값과 다문화수용성의 초기값의 상관($\beta=0.472$)이 매우 높게 나타났고 변화율의 상관($\beta=0.681$)도 매우 높았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은 다문화수용성도 높게 나타났고 이후 변화에 있어서도 유사한 형태로 감소하는 변화를 보였다.

다문화수용성에 독서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독서량 초기값이 다문화수용성 초기값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서량이 높을수록 다문화수용성의 초기값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즉, 독서를 많이 한 학생은 다문화수용성에 있어서도 높게 나타난다. 독서는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두 변인간의 직접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독서의 직접효과임과 동시에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통한 간접효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했는데 독서가 주는 성공 혹은 성취에 대한 간접경험이 자기효능감을 상승시키고 다문화수용성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독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독서를 위해 필요한 환경과 이를 통한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의 함양을 위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대학 입시와 취업이라는 현실이 학생들의 독서를 어렵게 하고 이는 자기효능감과 다문화수용성 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충분한 독서시간의 확보와 학생들의 독서활동을 위한 충분한 도서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도서관의 장서가 많은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읽고 싶어하는 양질의 도서를 제공해야한다는 점에서 사서교사의 장서개발 관련 역량이 발휘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구연배 (2007). 독서요법이 대학생 자아형성 과정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1), 49-66.
- 기노경 (2022). 독서성숙도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자기주도성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독서코칭의 조절효과 검증. 대한경영학회지, 35(5), 929-960.
- 김미진 (2010). 아동의 다문화수용성 척도개발에 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성준 (2014). 학생 독서능력에 대한 독서환경, 독서경험, 독서교육의 영향관계에 관한 연구: 전라북도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2), 51-71.
- 김수영 (2016). 구조방정식 모형의 기본과 확장: MPLUS 예제와 함께. 서울: 학지사.
- 김영식, 김민석, 이길재 (2019). 독서 활동이 고등학생의 인지적, 비인지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 1121-1139.
- 김청송 (2018). 청소년의 자기효능감과 행복과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5(4), 177-197.
- 김혜진, 염명숙 (2014). 독서와 토론 교양 수업이 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자기조절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 교양교육연구, 8(4), 513-540.
-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19년 국민독서실태조사.
- 박성재 (2022). 도서관 대출권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관한 연구: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4), 455-472.
- 박주현, 변우열 (2018). 학교도서관 운영 인력이 학생들의 독서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 49(1), 123-147.
- 박혜숙 (2014). 초등 및 중학생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요인 탐색. *인문사회과학연구*, 44, 5-33.
- 법무부 (2022. 12. 1.). 출입국통계. 출처: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 안인자, 박미영 (2011). 공공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사례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3), 279-301.
- 안인자, 윤석운 (2013). 독서토론 프로그램 효과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1), 377-398.
- 오해연, 김기영 (2014). 공공도서관 다문화서비스의 주민 인식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2), 125-145.
- 이누리, 박세현, 이윤수 (2022). 자기효능감 변화 궤적과 원인 분석: 잠재 성장 모형의 적용. *직업능력개발연구*, 25(2), 153-175.
- 이미숙, 정옥년 (2022). 관계중심 독서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기효능감 및 대인관계역량에 미치는 효과. *인문사회21*, 13(5), 1389-1402.
- 이숙정, 유지현 (2008). 대학생의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22(3), 589-607.
- 이연옥, 노영주 (2012). 독서프로그램이 소외계층 아동에게 미치는 효과와 의미: 도서관과 함께 책읽기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1), 73-98.
- 이용관 (2021). 독서 행태 영향요인 분석: 독서여부와 독서량에 미치는 사회·문화·경제 자원의 영향을 중심으로. *통계연구*, 26(3), 66-86.
- 이용순 (2010). 부모양육태도, 자기효능감이 청소년리더십 생활에 기술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이지연 (2013).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영향: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청소년학연구*, 20(6), 219-241.
- 임은미, 정성석 (2009).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의 변화 및 우울에 대한 스트레스의 장기적 영향. *청소년학연구*, 16(3), 99-121.
- 장인실, 김명희 (2011). Bennett의 다문화 교육과정 모형에 근거한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다문화 인식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연구*, 50, 123-146.
- 장인실, 이혜진 (2010). 초등학생의 다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다문화교육연구*, 3(1), 55-87.
- 정예화, 정제영 (2017). 초·중·고등학생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35(2), 1-20.
- 정옥년 (2018). 창의성 관련 인문 독서 경험의 효과. *독서연구*, 49, 59-80.
- 조용완 (2008). 국내 도서관의 다문화자료 입수를 위한 효과적 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 지, 39(3), 429-456.
- 조은주, 장혜란 (2010).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노인 스트레스 감소에 미치는 효과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7(4), 259-281.
- 채수은 (2014). 매체 활용이 중학생의 시민의식과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62(3), 433-461.
- 최성보, 임지은, 주현준 (2011). 다문화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의 구조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8(4), 305-330.
- 하경애 (2010). 초등학생의 다문화인식과 영향요인 분석.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2).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한정아 (2011). 독서치료를 활용한 진로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태도성숙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1), 205-225.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Caprara, G. V., Fida, R., Vecchione, M., Del Bove, G., Vecchio, G. M., Barbaranelli, C., & Bandura, A. (2008).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role of perceived self-efficacy for self-regulated learning in academic continuance and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0(3), 525-534.
- Filimon, N. (2019). Reading habits and literacy preferences of Spaniards' book readers: A multidimensional perspective. Cuadernos Economicos De ICE, 63.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6(1), 1-55.
- Li, A. & Gasser, M. B. (2005). Predicting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sociocultural adjustment: a test of two medication model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5), 561-576.
- Lim, Eun Mi & Chung, Sung Suk (2009). The changes of youths' stress and depression and the long-term effects of stress on the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3), 99-121.
- Lysaker, J. & Tonge, C. (2013). Learning to understand others through relationally oriented reading. The Reading Teacher, 46(5), 428-429.
- Smith, M. C. (1990). Reading habits and attitudes of adults at different levels of education and occupation. Literacy Research and Instruction, 30(1), 50-58.

Van Rees, K., Vermunt, J., & Verboord, M. (1999). Cultural classifications under discussion latent class analysis of highbrow and lowbrow reading. *Poetics*, 26(5-6), 349-365.

•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Inja & Park, Miyoung (2011). Public library multicultural programs and improvement methods analyzed from case stud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3), 279-301.
- Ahn, Inja & Yoon, Seokyeon (2013). The study on effective factors of reading discussion for the young adults program of a local children care center in Inche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7(1), 377-398.
- Chae, SooEun (2014). Effects of media use o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citizenship and acceptance of multiculturalism.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62(3), 433-461.
- Chang, In-sil & Kim, Myeong-hee (2011). The influence of a multicultural education program based on Bennett's model on multicultural awareness and self-esteem. *Education Research*, 50, 123-146.
- Chang, Insil & Lee, Hyejin (2010). Factors to influence multicultural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 *Multicultural Education Studies*, 3(1), 55-87.
- Cho, Eun Joo & Chang, Hye Rhan (2010).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bibliotherapy program to reduce stress of the elderl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7(4), 259-281.
- Cho, Yong Wan (2008). Effective ways for acquiring multicultural material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3), 429-456.
- Choi, Sung-Bo, Lim, Ji-Eun, & Joo, Hyun-Jun (2011).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related variable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28(4), 305-330.
- Ha, Kyoung Ae (2010). Analysis of Elementary Students' Attitude Toward Cultural Diversity and Factors Influencing Attitude.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 Han, Jeong A (2011). The effects of career program using bibliotherapy on the career-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of high school girls. *Korean Journal of*

- Psychology: General, 30(1), 205-225.
- Jeong, Yehwa & Chung, Jae Young (2017).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academic achievement of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Based on Gyeonggi Education Panel Study(GEPS).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35(2), 1-20.
- Jung, Ok-Ryun (2018). Impact of the humanistic reading experience for the development of creativity. Journal of Reading Research, 49, 59-80.
- Ki, Nokyoung (2022). The effect of reading maturity on job engagement: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 of self-directedness and self-efficacy and moderating effect of reading coaching.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35(5), 929-960.
- Kim, Chung-Song (2018). A study on the medi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of adolescent and happines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5(4), 177-197.
- Kim, Hye-Jin & Yeom, Myung-Sook (2014). The study on the effect of reading and debate class on undergraduates' self-leadership and self-regulated learning.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8(4), 513-540.
- Kim, Mee Jean (201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Multicultural Acceptance Inventory for Korean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 Kim, Sooyoung (2016). Fundamentals and Extension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MPLUS Exampels. Seoul: Hakjisa.
- Kim, Sung-Jun (2014).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students' reading ability: focused on Jeollabuk-do.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5(2), 51-71.
- Kim, Young-sik, Kim, Minseok, & Lee, Giljae (2019). The effect of reading activities on the cognitive and non-cognitive development of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2), 1121-1139.
- Koo, Yeen-Bai (2007). A study of the effect of bibliotherapy on the stress of college students in the process of self-form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1), 49-66.
-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2012). Improvement of the Acceptance Multicultural Citizens.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Lee, Ji yeun (2013). The effects of parent's social support on adolescent's career attitude

- maturity: the role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s mediator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6), 219-241.
- Lee, Misook & Jung, Ok-ryun (2022). Effects of relationship oriented reading program on the adolescents self-efficacy and interpersonal competence.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3(5), 1389-1402.
- Lee, Nuri, Park, Saehyun, & Lee, Yunsoo (2022). An examination of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and its causes of self-efficacy: application of the latent growth model.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5(2), 153-175.
- Lee, Sook Jeong & Yu, JiHyun (2008).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2(3), 589-607.
- Lee, YeonOk & Noh, Young-Joo (2012). The effect and meaning of reading program for alienated children: focused on 'The Reading Program with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1), 73-98.
- Lee, Yong-Kwan (2021). Analyzing the influence factors of reading behavior: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resources on reading probability and reading volume. *Journal of the Korean Official Statistics*, 26(3), 66-86.
- Lee, Yongsoon (2010). The Effects of Their Parent Breeding Attitude and Self Efficiency on Adolescent's Leadership Skills. Master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 Lim, Eun Mi & Chung, Sung Suk (2009). The changes of youths' stress and depression and the long-term effects of stress on the dep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6(3), 99-121.
-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2020). 2019 National reading survey.
- Ministry of Justice (2022, December 1). Immigration statistics. Available: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
- Oh, Haeyeon & Kim, Giyeong (2014). Perception of local residences on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5(2), 125-145.
- Park, Hye-Sook (2014). Investigating factors related to multicultural receptivity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Studies i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44, 5-33.
- Park, Juhyeon & Byun, Woo-Yeol (2018). The effects of school library personnel on students'

reading behaviors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1), 123-147.

Park, Sungjae (2022). Variables affecting circulation of library collections: using latent growth mode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4), 455-472.